

■ ‘버스 참사 10일’ 지리산 횡단도로 차량 속도 측정 해보니

제한속도 지킨 車 100대 중 1대 뿐

지난달 25일 지리산 횡단도로에서 버스 추락으로 순천 매산중학생 5명이 목숨을 잃고 3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본사 취재팀은 참사 후 일주일 이 지난 첫 주말(6월2일), 구례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성삼재~천은사 구간(9.5km)에서 과속 및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을 조사했다.

◇여전히 과속하는 차들=속도 측정용 카메라는 지난해 일선경찰에 보급된 한국제 ‘GUN-A CAM’ 기종. 카메라 설치 장소는 버스가 추락한 현장(경사도 6.6도) 아래 500m 떨어진 곳으로, 천은사에서 3km 지점이다. 이

험천만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짙은 선팅으로 식별이 어려운 차량을 제외한 55대 중 40%인 22대의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성삼재 버스 타보니=토요일인 2일 오후 1시40분, 구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삼재로 향하는 농어촌 버스가 출발했다. 승객은 등산객과 한 쌍의 젊은 연인 등 모두 6명. 이중 2명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

시속 40km대로 올라가던 버스가 70~80도에 가까운 급경사를 도는 순간, 반대편에서 빠른 속도로 내려오던 승용차가 아찔하게 비껴갔다. 버



본사 취재팀과 구례경찰이 지리산 횡단도로 버스 추락 현장 부근에서 성삼재에서 내려오는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고 있다. 토요일인 지난 2일 과속단속 카메라로 측정된 100대의 평균 주행속도는 제한속도(20km)를 두 배 이상 넘는 41.39km였다. /구례=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를 밟았다. 제한 속도 20km의 표지판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다. 횡단도로 곳곳에선 브레이크 과열로 라이닝

다는 냄새가 진동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운전자·탑승객 절반 안전벨트 안 때 버스, 급경사에 레미콘차 추월 ‘아찔’

곳은 횡단도로 전체에서 80m 직선거리가 나오는 유일한 장소로, 이동식 카메라로 과속을 측정할 수 있는 곳이다. 지리산 횡단도로 전 구간의 제한속도는 20km. 측정 시간은 차량이 가장 많이 내려오는 오후 2시~4시 사이를 택했다.

이날 성삼재에서 천은사 방면으로 내려온 차량은 100대. 평균 주행 속도는 ▲승용차(69대) 42.03km ▲승합차(10대) 40.4km ▲버스/화물차(12대) 34.16km ▲택시(9대) 47.22km로 나타났다. 통행 차량 전체 평균 속도는 41.39km로, 제한속도를 두 배 이상 초과했다.

스는 광케이블 매설공사를 위한 레미콘 차량이 앞을 막아서자 한참 후 위협을 무릅쓰고 추월했다.

오후 4시40분, 성삼재에서 터미널로 향하는 또 다른 버스에 올라탔다. 승객 9명 중 안전벨트를 스스로 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성삼재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직전, 구례 광의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차에 올라와 일일이 확인하자 그제야 벨트를 찾기 시작했다.

규정 속도를 지킨 차량은 승용차 1대뿐이었고, 일부 탑승객들은 선루프(sun roof) 위로 얼굴을 내놓는 등 위

험천만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짙은 선팅으로 식별이 어려운 차량을 제외한 55대 중 40%인 22대의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를 밟았다. 제한 속도 20km의 표지판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다. 횡단도로 곳곳에선 브레이크 과열로 라이닝

다는 냄새가 진동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브레이크(foot brake)를 지나치게 사용하면 마찰재(摩擦材)가 탄다. 마찰재는 내열성 합성섬유·열경화(페놀 등) 수지에 금속 분말을 섞은 것으로, 패드(pad) 또는 라이닝(lining)이라고 부른다.

운전자가 페달을 밟으면 유압이 라이닝과 패드를 밀어주는 휠 실린더(wheel cylinder)에 전달, 드럼(drum)이나 디스크(disc)와 마찰을 일으켜 차를 멈추게 하는 것이다.

마찰재는 드럼이나 디스크 온도

가 300도가 넘으면 녹아내리기 시작한다. 표면이 부드러워지면서 제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페이드(fade) 현상은 ▲차량 속도 ▲도로 기울기(傾斜度)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국자동차공학회’에 따르면 내리막길에서 40km 속도로 달릴 경우

15~20분이면 온다고 지적한다. 성삼재~천은사 9.5km 구간 중 천은사 3.5km 앞 지점부터 라이닝 타는 냄새가 나는 것은 그 때문. 이런 현상은 지표면의 온도가 높은 여름철 일수록 심하다.

지리산 횡단도로의 경우가 같은 브레이크 과열로 ▲2004년 8건(사망 2명, 부상 60명) ▲2005년 4건(부상 7명) ▲2006년 4건(부상 34명) ▲2007년 2건(사망 5명, 부상 30명)의 사고가 발생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를 밟았다. 제한 속도 20km의 표지판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다. 횡단도로 곳곳에선 브레이크 과열로 라이닝

감금 여중생 성매수자 11월께 명단 공개된다

가출 여중생 감금 성매매 사건에 연루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리스트가 광주·전남지역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경찰이 피해자 A(14·중 2 중퇴)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채팅 사이트 기록을 통해 확보한 성매수자는 800여 명. 이중 1차로 조사를 받고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70여 명 중에 대학교수·의사·약사·법조인·공무원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충격적인 사건이 보도된 직후, 본보에는 “성매수자 리스트를 갖고 있느냐?”는 대학·의료계·법조계·관공 측 전화가 빗발쳤다. 기존 직장인들도 “출근 전 ‘혹 당신도 명단에 끼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말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전북지방경찰청은 조사가 마무리되더라도 성매수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겠

다는 입장. 하지만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관보(官報)와 인터넷을 통해 발표하는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에서 이틀·적압·주소·현의 등이 적나라하게 밝혀지게 된다. 청소년위는 매년 두 차례 명단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 관련자는 오는 11~12월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단법인 광주여성회’의 전화·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아동 성 착취 예방센터 ‘반디’는 5일 성명서를 내고 ‘성매매 알선자·장소 제공자·은닉 행위자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치료 상담 등을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원침 (7228) 김장동



더 좋은 건축·산업재 KCC

DS건설(주) KCC창호, 센스 들어 대리점

KCC창호, 시스템창호 생산·시공

▶본사:(062)514-3002 ▶공방:(061)337-9605

(주)본드나라 KCC실리콘 페인트 대리점

실리콘·방수제·접착제·테이프

▶광주점:(062)525-9002 ▶전주점:(063)271-5051

택시 운전자 영업 중 만취 뺑소니

북부경찰, 50대 검거

개인택시 운전사가 영업 중 술에 만취, 접촉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은 5일 한밤중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성모(53·광주시 동구 계림동)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2004년 이후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147명으로 전체 택시 면허취소자(186명)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올 현재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12명이다.

/이종행 기자 galee@kwangju.co.kr

조폭 두목 환각상태서 전처에게 흥기 휘둘러

여수경찰은 5일 환각상태에서 헤어진 전처에게 흥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여수 폭력조직 ‘중앙파’ 두목 박모(42)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일 새벽 2시30분께 히로뽕을 맞은 뒤 전 부인 서모(35·화순군 화순읍)씨에게 23차례나 흥기를 휘두른 혐의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임금 체불 우려 고급 양주 출처

○임금 체불을 우려해 자신이 일하던 ‘제즈 바’에서 고급 양주를 출한 여중업원 2명이 주인의 신고로 달피.

○5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모(19·전북 익산시 중앙동)양 등 2명은 지난달 31일 새벽 12시30분께 광주 모 ‘제즈 바’에서 ‘발렌타인’(Bullantine) 30년산과 ‘조니워커’(Johnnie Walker-black) 등 시가 172만원 상당의 양주 3병을 훔쳤다는 것.

○고교 동창생인 이양 등은 ‘제즈 바’에서 보름 동안 근무하던 중 전에 근무했던 아르바이트생 2명이 밀린 급여를 받으러 오자 임금 체불이 걱정돼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이양 등은 “여거지가 들어보니 고생만 하고 돈을 받지 못한 사람이 또 있었다”며 “월급이 안 나올 것이라고 미리 짐작, 대신 양주를 가져왔다”고 진술. /이종행 기자 galee@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수석합격자배출 13,14회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학원

◇“서울”새롬행정고시학원 광주 상륙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전문학원(전국 25개 학원 체인)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TV방송출연 교수진/저자직강★

6월 1일 첫진도 시작반 (주간반,야간반) •재직자 무료 수강생 야간반 60명 선착순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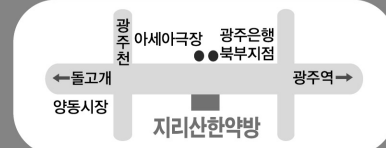
합격률1위! 새롬행정고시학원 361-8111 서구청앞(농성동)

지리산한약방 (국내산한약재료사용)

다이어트·전립선염·조루·허리디스크

자세한 자료는 www.jir.wo.to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문의 (062)531-3636, 531-0700 523-4600, 011-9612-5530



사립교사 공채안내

영양교사 교수진 특별초빙강좌 2008년도 사립공채 모집안내 사립학교 수급계획에 따른 공채

지금(올해) 바로 최적기입니다 “전 과목” 2009년부터 모집요강 변경예정

선택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직원채용 (정규직)

- 2년제이상 졸업자
- 남,녀(30세미만)
- 이력서지참요

주관: 전국교육신문사 교육정보연수원

광주지원 TEL. 062)511-6359 H.P. 017-631-4467 서울지원 TEL. 02)3664-5263